

# 한(조선)반도 문학예술 개념의 문화정치학\*,\*\*

— 접변하고, 횡단하고, 실천하는 문학의 분단을 중심으로

李芝順\*\*\*

- |                       |                        |
|-----------------------|------------------------|
| I. 분단으로 접변하는 개념       | IV. 개념의 영토적 횡단과 일상의 실천 |
| II. 개념사 방법론과 비대칭성의 문제 | V. 개념의 분단사가 남긴 문제와 의의  |
| III. 분단 민감성과 상호 전유    |                        |

## • 국문초록

이 글은 문학의 분단을 중심으로 남북한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을 살펴보았다. 분단 민감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문학예술 개념들은 물리적 분단이 어떻게 의식과 개념의 분단을 이끌고, 분단을 공고히 했는지 보여주었다. 남북한은 단절되었지만 완전한 분리가 아니었고, 서로를 배제하며 경쟁했고, 그리고 때로는 상호 소통했다. 1980년대 말 민족문화이 남북한 소통의 매개가 된 것처럼, 문학예술은 남북한이 서로 교섭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개념화되었지만 언제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김소월처럼 문학예술은 소통을 선도할 수 있다. 현실의 경험과 기대가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이 글은 개념이 어떻게 시공간을 맥락화하고 분단을 역사화 했는지 인식함으로써 분단을 해체하고 분단 너머를 상상하고자 했다.

**주제어** : 비대칭성, 분단 민감성, 상호 전유, 개념의 접변, 개념횡단적 맥락

\* 이 글은 2019 북한학-한반도학 1차 학술회의 발표문을 『대동문화연구』 특집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총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KSS-1230006).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I. 분단으로 접변하는 개념

한반도는 무장된 평화 상태에 있다. 70여 년 동안 분단을 이어오면서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향구성을 찾는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분단 극복의 가능성은 남북한의 공통 관심사였다. 이때 하나의 역사, 문화, 언어를 가진 민족 개념이 동원되곤 한다. 분단이 초래한 민족의 이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동질성을 회복하여 분단을 극복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분단에 대한 노스텔지어에 가깝다. 분단이 형성해 온 ‘서로 다름’은 너무 깊어서 ‘같음’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러다 맞이한 2018년의 정세 변화는 핵을 중심으로 신냉전 기류가 흐르던 한반도에 평화를 키워드로 걸어 올렸다. 그러나 2019년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상속자 위치에 놓여 있다.

단절된 두 체제가 공존하는 한반도는 조선반도이다. ‘the Korean Peninsula’는 남북한에서 각각 한반도와 조선반도이다. Korean literature가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으로 각기 불리는 것과 같다. Korea는 한국이면서 조선이다. 이는 번역 용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포된 개념의 차이와 분단이 감각화된 흔적이다. 한편으로 ‘한반도/조선반도’는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고 해체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한(조선)반도는 서로 다름과 같음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해 왔다. 언어는 더 이상 절대적 공통점이 아니다. 동일한 뜻을 가졌던 하나의 말은 시간의 경과, 공간의 분리와 함께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정학적 분단이자 정치적 분단은 사회를 규정하는 문화와 의식의 분단도 이끌었다. 남북한은 일상어부터 평화, 전쟁, 민족에 이르는 추상적인 개념어까지 같은 말임에도 서로 다른 의식과 문화적 관행, 의미로 사용해 왔다. 남북한 사전 모두에 등재된 단어이지만 의미와 수행은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북한의 공식 문건이나 언론보도에서 볼 수 있는 욕설, 조롱, 폭력의 원색적인 수사들은 북한의 외교적·정치적 전략의 하나이다. 동상이몽의 순간들은 제법 많이 발생한다. 동일한 언어 공동체라고 상상했던 남한과 북한은 번역과 통역이 있어야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미래가 올 수도 있다.

남북한 각자의 언어, 의식, 생각, 감정은 통념의 형태이자 집단 의식으로 유전되어 왔다. 개념의 차이는 대타적 변별성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은 한(조선)반도 의식의 특징을 반영·유지하며, 해당 사회문화의 특질과 구조의 토대라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미시적인 의식의 포자들이 거대 담론과 체제를 형성하며 현재의 분단 체제를 이루었다면, 포자들의 이동 경로를 되짚어봄으로써 분단을 재-조망할 수 있다.

‘한(조선)반도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사’ 연구는 DMZ의 물리적 분단이 개념의 분단을 초래하고, 개념의 분단이 물리적 분단을 공고화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입론했다. 물리적 장벽은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식도 가로막는다. 동일한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때, 기능적으로 等價이지만 다른 단어로 개념을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이해할 때, 수사적 차원의 단어 사용이 서로 다른 감정적 파장을 불러올 때, 소통의 장벽이 형성된다. 이런 층들이 쌓여 일상에서 작동하는 개념의 분단을 불러오고 물리적 분단은 더욱 견고하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인 ‘人民’ 개념은 북한이 선점했기 때문에 남한이 포기하게 된 경우이다. 개념의 분단사는 타자에 대한 배제가 개념에 영향을 끼치고 분화를 촉진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sup>1)</sup> 즉 개념의 분단사는 생각의 차이가 시간의 변화를 겪으며 단어에 흔적을 새기고, 각자의 영토에서 퇴적된 의식의 차이가 분단체제를 견고히 구축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개념적 경쟁관계에서 서로 갈등하거나 상호작용해 왔고, 자신의 영토에서 선점한 개념으로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응전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한(조선)반도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사’ 연구는 강고한 분단의 장벽 앞에서 분단을 다시 고민하는 작업이다.

한국에서의 개념사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근대성 연구를 역사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독일의 개념사 연구와 담론 연구, 문화사 연구는 개념의 역사에 공통적인 관심이 있었다. 근대성 연구는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개념’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주목했다. 번역을 통해 유입된 서구의 개념은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각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서구의 개념은 충돌하고 전유되는 과정을 통해 횡단했다. 개념사적 접근은 근대계몽기 지식개념과 사회과학개념, 역사 용어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한국의 개념사 연구는 개념의 수입과 변천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념의 쟁투를 탐구했다.<sup>2)</sup> 이와 같은 작업과 별도로 ‘Vita

1) 구갑우, 「개념의 분단사를 시작하며」, 구갑우·이하나·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a), 13~15면.

2)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을 살펴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은 갑오개혁에서 한일합방까지 근대계몽기의 대표 매체인 『독립신문』과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독립, 국민, 동포, 개인, 사회, 문명 등의 근대 개념이 어떻게 담론으로 형성되었는지 주목하였다. 역사비평사는 한국 역사학계에서

Activa: 개념사 시리즈'나 '개념어총서 WHAT 시리즈' 같이 출판사가 주도한 경우도 있다.<sup>3)</sup> 출판사의 개념어(개념사) 시리즈는 대중 독자들이 개념의 의미, 역사 등을 이해하고 개념의 작동방식을 파악하도록 기획된 공통점이 있다. 개념사 연구의 괄목할 성과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한국개념사총서'이다. 이 총서는 만국공법, 국가·주권, 헌법, 국민·인민·시민, 민족·민족주의, 문명, 문학, 제국, 노동 등을 결과로 도출했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개념들이 형성된 시기를 19세기 중엽부터 1950년까지로 상정하고, 근대 개념이 서구 문명을 만나 충돌과 투쟁을 경험하는 역사적 과정과 의미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소통을 증진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1990년대 초 개념사 연구가 등장한 이래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대체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연구 범위가 한정된 점, 동아시아 개념의 변형과 수용을 다루었지만 한반도의 맥락에서 중요 지점을 차지하는 분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북한이라는 공간적 지형을 제외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사회 관련 개념어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지만 문학예술의 지분은 크지 않다. 한림과학원의 한국개념사총서의 '문학' 또한 분단의 문제를 제외한 상태에서 근대 수입 과정에 천착했다.

---

사용하는 40개의 역사 용어를 점검하며 용어의 변천을 소개하고 용법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용어를 제안함으로써 코젤렉의 개념사와 다른 방식의 작업을 보여주었다. 사회과학개념 형성사는 개념사를 현실과 개념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로 규정하고 19세기 근대 유럽의 기본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사회과학 개념의 패권 경쟁 등을 분석해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2004),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2005),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2007) 등과 역사비평 편집위의 『역사용어바로쓰기』(2006), 하영선 외가 참여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1권(2009), 2권(2012) 등 참조.

- 3) 책세상의 'Vita Activa: 개념사 시리즈'는 한국사회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본 열쇠가 되는 기본관념, 제도, 사건, 쟁점 네 범주에서 개념을 선정했다. 『인권』, 『아나키즘』, 『시민』, 『계급』, 『아방가르드』, 『폭력』, 『IMF위기』, 『노동가치』, 『인종주의』, 『비정규직』, 『정당』, 『68운동』, 『87년 6월 항쟁』, 『제국주의』, 『공화주의』, 『자유』, 『헌법』, 『파시즘』, 『테러』, 『자본주의』, 『시민혁명』, 『북지국가』, 『민족주의』, 『생태주의』, 『근대국가』, 『평등』, 『지식인』,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공성』 등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권으로 완간했다. 그린비의 '개념어총서 WHAT 시리즈'는 『공이란 무엇인가』,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주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재현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인문학의 '개념' 이해를 목적으로 기획된 시리즈이다. 그린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권을 출간했다.

그렇다면 개념의 분단사가 문학예술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이 쌓아온 분단의 장벽을 넘을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가 문학예술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경험과 학습으로 습득되며, 사회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양식이자 코드이다. 문화는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은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실현한다. 여기에 예술은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문화의 핵심이다. 예술은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의 결과물이며,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즉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용해되어 있는 문학예술은 타자와 소통할 창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문학예술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모습이 되었다. 차이를 인지하고, 나와 타자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해독력(cultural literacy)이 높아질 때 소통의 통로도 넓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을 규정할 개념어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충분치 않았다. 북한 문학예술 각론에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해 남한과 다르게 사용하는 개념을 논의하거나, 남북한 비교를 통해 이질적 요소를 드러내는 식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한(조선)반도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사 연구’는 정치·사회과학 분야의 개념어에 한정되고, 공간적으로 남한 중심이었으며, 시간적으로 분단 이전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연구를 넘어서려는 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예술의 관념조차 정치성의 산물이라면, 문학예술의 개념사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와 같은 환경적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문학이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한다고 함축한 랑시에르의 규정을 참조하면, 정치는 “특정한 경험들의 영역을 구성”<sup>4)</sup>한다. 즉 문학예술의 정치란 시간과 공간,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구획 안에서 실천하고 말하고 분할하고 감각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분단이 개념의 생성과 변용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면, 북한이라는 공간을 적극 포섭하고 분단으로 분절된 시간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분단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축에서도 개념을 굴절시켰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식민시대에 수입되고 수용된 개념이 분단 이후 각자의 영토에서 고유의 의미를 구축하며 개념을 형성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물리적 분단이 어떻게 개념의 분단을 가져왔는지 몇 가지 연구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단절되어 있었지만 완전한 분리가 아니었고, 경쟁했지만 상호작용했고, 분단되었지만 소통

4) 자크 랑시에르 저,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0면.

했다. 이 같은 모순과 충돌, 합의와 협력은 개념사적 작업으로 드러날 수 있다. 개념사 쓰기를 되돌아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시공간을 맥락화 하고 분단에 개념의 지문을 찍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분단을 재인식하고, 분단을 해체하고, 분단 너머를 촉매하고자 한다.

## II. 개념사 방법론과 비대칭성의 문제

기존의 개념사 작업은 계몽기와 식민시대의 정치·사회 개념에 편중되어 있어 해방기와 분단 이후 개념의 변화와 재구성은 미답의 영역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은 근대 초기부터 식민시대의 개념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해방 이후 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며 변용을 거친 모습에 가깝다. 또한 한국전쟁과 분단은 서로 다른 개념의 지평을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분단을 반영하는 개념어는 무엇인가? 여기에 첫 번째 영감을 주는 것이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기본개념 중심의 방법론이다.

코젤렉의 방법론은 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경험의 맥락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역사의 운동을 선도하는 기본개념에 주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의미 구조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등장하는 담론들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을 분석했다. 그러나 코젤렉의 연구는 개념의 언어적 맥락 및 사회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이론적 설계와는 달리 ‘위대한’ 텍스트 안에 있는 ‘특별히 의미있는’ 단어들의 ‘장기적’ 전개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념이 현실에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공시적 양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sup>

한(조선)반도 분단의 맥락으로 넘어가 보면, 코젤렉으로 포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성수는 개념의 분단사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언어 개념상의 문제를 꼽았다. 코리언 리터러치(Korean Literature)는 한국문학, 남북한문학, 조선문학, (남)한국-(북)조선문학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사국의 자기중심

5) 김지영, 「풍속·문화론적(문학) 연구와 개념사의 접속, 일상개념 연구를 위한 試論」,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490면; 김현주, 「근대 개념어 연구의 동향과 성과-언어의 역사성과 실재성에 주목하라」,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209면.

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단순한 동음이의어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문학이나 조선문학의 경우 각기 발화자의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타자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남북의 비대칭적 대항 개념을 고민하면서 호아오 페레스(João Feres Junior)의 ‘비기본 개념의’ ‘아래로부터의’ 비판적 개념사론의 적용이 제안되기도 하였다.<sup>6)</sup>

개념의 분단체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로 비대칭성을 안은 채, 분단을 (재)구성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민족’을 상정할 수 있다. ‘민족’은 코젤렉이 말하는 ‘역사의 운동을 선도하는 개념’이다. 기본개념인 ‘민족’에 문화와 예술이 교차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정립되었는지 보는 것이 첫 번째 작업으로 선정되었다. 문학, 미학,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민족이 각 문학예술 분야에 어떻게 개념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본 연구는 2018년에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3권으로 성과를 냈다.<sup>7)</sup>

민족은 남북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민족이 혁명 또는 주체의 의미를 가지는 관형어로 작동하는 북한은 개념의 쟁투를 거친 남한의 민족 개념과 구별된다. 북한은 1967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이후 전유와 변용을 거친 민족 개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독점하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분단의 극복을 지향하는 진보와 좌파 진영이 전유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민족 개념을 생산하는 두 주체로서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했다. 남북한은 민족 개념을 둘러싸고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때에 따라 북한의 국가와 남한의 시민사회가 생산한 민족개념과 연대하기도 하였다.<sup>8)</sup>

민족은 문학예술과 접촉하면서 ‘민족적인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공동체의 전망과 기대를 매개했다. 남북한이 각자의 영토에서 호명하는 ‘민족+문학예술’의 각론들은

---

6) 김성수, 「(민족)문학 개념의 남북 분단사」, 김성수·이지순·천현식·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19~22면.

7) 구갑우, 이하나, 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김성수, 이지순, 천현식, 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김성경, 이우영, 김승, 배인교, 전영선,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3』,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8) 구갑우, 「한반도 민족 개념의 분단사」, 구갑우, 이하나, 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b), 24면.

분단을 가시화했다. 한(조선)반도에 특수한 문학예술 개념을 발명해온 ‘민족’ 문학예술은 민족문학, 민족미술, 민족음악, 민족영화, 민족미학 등으로 실천되었다. 이들은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기표이지만, 민족의 정의부터 식민시대 민족과 문학예술의 해석 그리고 분단 이후 전개과정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해온 개념들이다. 장세진이 지적했듯이 ‘민족+○○(예술형식)’은 각 예술 장르의 역사를 ‘민족’ 키워드로 다시 쓰는 작업으로서 개념사와 장르사를 결합한 형태가 되었다.<sup>9)</sup> 그러나 개념의 족적을 통시적으로 추적하려면 이들 용어들이 남북한 모두에서 활성화된 상태를 전제한다. 이때 비대칭성 문제는 개념의 분단사 연구가 맞닥뜨린 곤란함을 집약한다.

김성수는 먼저 남한과 북한에 동일한 전제와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론했다. 용례를 추출할 매체부터 남북한이 서로 개념으로 경쟁했던 시기를 설정하는 것까지 문제가 된다. 먼저 사전, 문학개론서, 문예지 등 매체적 비대칭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문예사전의 경우에도 시장논리에 따라 출판된 남한과 이념적 통합이 이루어진 북한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일간지나 문예지 같은 매체의 경우에도 남한이 다양한 경쟁 구도 아래 다종이 출간되어 대표 매체 하나를 선정하기 어렵다면, 북한은 대표가 뚜렷한 단일 지형이다. 문단, 문학장, 문예지, 대표작, 대표작가의 선정 문제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역사의식과 서술태도로 시기를 구분하다 보니, 분단 체제하 시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남북한의 상호 영향관계를 공통 준거로 삼아 의미 있는 시대 구분을 할 수도 있으나, 예술사의 시대 구분이 남북 관계사 같은 정치 변수에 종속되어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sup>10)</sup> 풍부한 용례와 빈약한 용례, 대표 매체 선정의 문제, 시기 구분의 어려움 등 각종 비대칭성은 개념의 분단사가 마주한 문제들이었다.

또 하나의 곤경은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를 다룰 때 의미 내용이 지나치게 단조로울 것으로 처음부터 예측되는 명백한 예상 가능성이다. 장세진은 민족문학 개념사를 읽고 난 후에는 다른 예술 장르도 민족문학 개념사와 유사한 경로를 밟으리라 짐작하게 하는 반복성과 도식성이 오히려 더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sup>11)</sup> 북한

9) 장세진, 「1945년 이후, 개념의 잃어버린 ‘공간성’에 주목하라」, 『개념과 소통』 22,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8, 303면.

10) 김성수, 앞의 2018 논문, 23~25면.

문학예술은 정치 사회적 환경과 이념적 층위에서 제약을 받고 그에 따라 전개되어 왔다. 북한 역사의 진행 방향과 이념의 경사로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어느 분야에서도 무한히 사본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각론의 세부는 역사와 이념의 審級 아래 모두 동일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세진이 장르사와 결합한 개념사 쓰기 방식이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미덕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은<sup>12)</sup> 저마다의 방법과 관점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분야별 역사쓰기임을 보여준다.

문학예술 개념사는 장르별 각론의 세부가 기존의 장르사나 예술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개념사가 기본적으로 역사주의 방법에서 출발하듯,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개념의 변동에 영향을 끼친 사건과 맥락을 엮어낸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변동과 이념, 사건은 맥락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남한의 문학예술 각론 또한 ‘ঐ’로 집대성할 경우—각론과 관점의 다양성을 전제한다 하더라도—공론으로 합의된 부분이 존재한다. 개념의 분단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두르고 그동안 어떻게 의미의 성쇠와 기복을 겪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때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분단 민감성’이다.

### Ⅲ. 분단 민감성과 상호 전유

‘분단 민감성’은 하나의 개념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쟁투하고 전유하고 배제하는 것을 ‘분단’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리적 분단은 개념의 분단을 재생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졌다. 북한이 조선로동당으로 대표되는 독점적 실천 양태를 갖고 있으며 내용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쟁투의 과정을 거친 독점이었다. 남한이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주체들이 경쟁하는 다양성의 공간으로 파악되지만, 내부적으로 해석의 위계를 통해 구성되는 양상도 포착되었다. 개념의 분단사는 이러한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공간을 독자적으로 운영

11) 장세진, 앞의 2018 논문, 306면.

12) 장세진, 앞의 2018 논문, 307면.

하면서 하나의 개념을 서로 경쟁하고, 전유하고, 배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폐쇄는 개방이 되고, 독점은 공유가 되고, 단조로움은 다양성이 되는 순간을 기대해볼 수 있다.

「민족문학」 개념의 남북한 상호 영향관계 연구」는 북한과 남한이 ‘연대’하는 과정을 포착했다.<sup>13)</sup> 이 연구는 기존의 남북한 문학예술 연구가 진행해왔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민족문학 개념을 둘러싼 주변부 사건에 주목하여 문예지, 문학사, 평론이 아니라 남한의 『동아일보』와 북한의 『로동신문』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sup>14)</sup> 신문은 일간지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얻어 일상적 감각으로 의미화 되고, 개념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의 방법론은 코젤렉의 이념사적 성격을 극복하고 공시적 관점에서 개념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다. 라이하르트가 적용한 어휘통계학은 빈도와 상황적 맥락을 통해 개념을 귀납적으로 추출한다. 일정 기간에 걸쳐 어떤 어휘의 빈도가 높은지 측정하고, 高頻度로 포집되는 어휘들의 역사적 출현 정황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빈도 어휘에 새겨진 당대의 문제의식, 사회정치적 맥락, 개념과 관련을 맺는 서사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경우 몇 가지 전제들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남북한 모두에게 계량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빈도 추출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양쪽 데이터는 대칭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제 언론이자 담론을 독점하는 『로동신문』은 발신자 중 하나에 불과한 『동아일보』와 비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족문학을 배제해 왔기에 꾸준히 출현빈도를 보여준 남한과 비교해 빈약의 정도는 더욱 심하다. 그렇기에 오히려 『로동신문』에서 극히 일부 나타나는 민족문학 빈도는 이례적인 ‘사건’이 되었다.

빈도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이 정치적·실천적·담론적으로 가장 역동적이었던 때는 1980년대 말이었다. 남한에서 민족문학은 꾸준히 논쟁적 개념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개념의 지위를 얻지 못한 단어였다. 긴 공백을 깨고 북한

13) 이지순, 「민족문학」 개념의 남북한 상호 영향관계 연구, 김성수, 이지순, 천현식, 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a).

14) 『동아일보』는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기사 색인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로동신문』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가 창간호부터 2002년까지 기사색인 DB를 구축한 바 있다. 『로동신문』이 북한의 대표 신문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동아일보』는 이념적 중립성과 보도태도가 연구된 바 있어 남한의 대표언론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일시적이거나 민족문화가 등장하게 된 것은 남한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민족문화를 ‘상호 전유(mutual appropriation)’하는 양상은 사회정치적·문화적 맥락을 살핀 후에 구체화 할 수 있었다.<sup>15)</sup> 1987~1989년 『동아일보』에서 민족문화는 분단문제, 7.4공동성명, 간행물압수, 통일, 김남주 등 투옥문인 석방, 성명, 황석영 방북, 국가보안법 위반, 시국선언 등과 共起하고 있다. 같은 시기의 『로동신문』은 김남주 시인 석방, 통일, 분단, 파쑈도당, 국가보안법, 황석영 공화국 방문, 민족분렬, 서적 압수 등으로 맥락화 되었다.<sup>16)</sup> 문학의 밖에서 운동하던 민족문화는 정치권의 배타적 소유물이었던 분단과 통일 문제를 적극 포섭했고, 북한이 이에 호응했다.

북한에서 ‘민족문화’는 1972년과 1973년에 ‘사회주의 민족문화예술’로 잠시 등장했지만, 이후에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그러나 『로동신문』은 1987년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창립부터 이들의 활동을 ‘선택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면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보여준 정치적 활동이나 통일 논의에 호응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이 변화된 북한 내부의 사정과의 관련되어 있다. 핏줄과 언어를 강조하며 민족성을 중시한 ‘우리민족제일주의’<sup>17)</sup>가 처음 등장한 1986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민족주의 개념에 반발이 일어났지만,<sup>18)</sup> 1990년대 초 김일성이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sup>19)</sup>라는 언명 이후 민족주의 개념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민족문화를 매개로 연대를 이루면서 함께 건설할 민족문화를 상상했다. 그러나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제안한 남북작가회의는 회담일 당일에 불발되었다. 북한이 남한 작가를 ‘한겨레문인’으로 지칭하며 분단을 극복하는 첫 걸음을 함께 떼고자 하였으나, 황석영 방북이 촉발한 남한의 불안한 정국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국가와 남한의 시민사회가 생산한 민족개념의 암묵적, 명시적 연대”<sup>20)</sup>를 민족문화가 매개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1990년이 되자 1987년부터

15) 이지순, 앞의 2018(a) 논문, 92면.

16) 이지순, 앞의 2018(a) 논문, 108면.

17)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8)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반동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민족주의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했던 북한은 민족주의자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것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19)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성원들과 한 담화 1991년 8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1989년까지 소용돌이쳤던 민족문화의 에너지는 힘을 잃게 되었다. 북한에서 남한의 민족문화는 민중문화으로 정리되며 자취를 감추었고, 북한과 소통하던 남한의 민족문화는 ‘눈물의 후일담 문화’<sup>21)</sup>이 되면서 갱신을 이루지 못했다.

노동문학, 노동해방문학 분단문학, 민족적 민족문학 통일지향의 민족문학 남북공동의 민족문학 고포문학 연변문학 민중문학 지역문학	1 서울민족문학선언문 문예운동, 문학운동 2 창작과비평 복간 3 4 남일복작가 해금 5 6 무크지 : 17 남북작가회담 : 73 민족문학작가회의	1 선언문, 서울민족문화제 복남작가회담, 민족문화발전 한겨레문인, 통일민족국가 건설 민족자주·민주·통일의 대의 2 3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투쟁 통일 5 북과 남, 해외동포작가회의 : 12 민족문학작가회의
계열의 장	민족문화	통합의 장
원인	반의어	민족문화(예술)
투옥문인 석방 촉구 : 분단문제 성명 발표 5 4 4 펜대회 보이콧, 서울민족문화제 황석영 방북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 수색 3 2 순수민족문학 민족진영(문협) 1 1 시국선언 7.4공동성명, 통일	10 : 6 5 4 3 2 1	5 3 2 1
원인	반의어	통합의 장
		반의어

〈그림 1〉 민족문화 개념의 의미망: 남한(왼쪽), 북한(오른쪽)<sup>22)</sup>

롤프 라이하르트的方法론은 단어의 빈도, 출현 상황, 담론의 변동을 종합해 계열의 장, 통합의 장, 원인, 반의어 등 네 개로 구성된 개념의 의미망을 그린다. 개념의 의미망은 개념을 선도한 이론가들의 개념의 쟁투가 아니라 현장에서 민족문화이 개념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전파되고 감각되는지 가시화할 수 있다. 1987~1989년의

20) 구갑우, 앞의 2018(b) 논문, 24면.

21) 최원식, 「80년대 문학운동의 비판적 점검」, 『민족문화사연구』 8(1), 민족문화사학회, 1995, 77면.

22) 이지순, 앞의 2018(a) 논문, 148~149면.

민족문학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투옥 문인 석방 촉구’는 88올림픽을 앞두고 개최된 서울펜대회 보이콧과 관련되며, 각종 압수수색과 이슈로 연일 떠오른 국가보안법, 여기에 대응하는 민족문학 진영의 성명 발표 등도 얽혀있었다. 1989년 황석영의 방북은 공안정국을 더욱 두텁게 했다. 민족문학 개념은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던 민족문학작가회의의 활동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민족문학은 지역문학, 민중문학, 연변문학, 교포문학, 남북공동의 민족문학, 통일지향의 민족문학, 분단문학, 민중적 민족문학, 노동문학, 노동해방문학 등과 동의어로서 ‘계열의 장’을 구성했다. 이는 민족문학 개념 안에 얼마나 다양한 하위 주체들이 이입되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남한의 민족문학 개념의 의미망은 북한의 민족문학 개념의 의미망에서 각각 ‘통합의 장’과 ‘원인’ 부분에 포섭되어 있다. 남한이 문학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다면, 북한은 민족문학을 포위하는 정치적 사건, 저항적 실천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민족문학은 분단극복과 통일의 의미망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며 개념을 형성했다.

계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엘리트 이론가 중심의 질적 분석이 아니라, 그들의 어휘가 얼마나 자주, 어떤 맥락에서 전파되고 상용되는지 주목한 경우였다.<sup>23)</sup> 코젤렉의 기본개념에 천착하지 않고, 실제 사용을 계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의식과 의미에 변화를 일으키는 맥락들과 사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 결과였다.

#### IV. 개념의 영토적 횡단과 일상의 실천

한 단어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사전이다. 사전은 의미의 공론장 역할을 한다. 백과사전은 “역사적 관습들을 토대로 형성된 코드 체계”를 전제로 하며, “통시적 요소들이 포함된 공시 체계로서의 코드”이기도 하다.<sup>24)</sup> 모든 지식의 총체가 백과사전이라면, 문예사전은 백과사전 가운데 문학예술 분야의 용어만 집약한다. 따라서 한 집단의 사고와 지식 체계를 망라하고 당대의 경험공간을 상징적으로 담는

23) 천현식, 「민중적 음악극 개념사 연구」, 김성수, 이지순, 천현식, 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참조.

24) 김운찬, 『움베르토 에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53면.

사전은 의미를 총괄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남북한의 문예사전에서 ‘서정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서정시를 고대 그리스의 악기 리라(lyra)에서 파생되어 나온 ‘lyre’에서 기원을 따지며 주관과 내적 표현, 음악과의 융합, 짧은 형식에서 특징적 의미를 찾는다.<sup>25)</sup> 반면 북한의 사전은 내면세계를 풍부한 정서를 담아 섬세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사전 설명과 유사하지만, 정서적 감화력이나 계급의 사상과 민족의 지향을 표현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26)</sup> 형식적 요소에 본질적 의미를 두느냐, 내용의 효용에 본질적 의미를 두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사전의 서술 태도는 서정시를 실천하는 작가들과 읽는 독자, 장르의 관습이 유통되는 해당 사회의 일상 모두에 각기 다른 층을 형성한다.

단순하게 두 체계를 비교하면, 남한은 서구 중심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예술관을 중심으로 한다고 변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사적 시공간의 변수와 사회·정치적 변인들을 응집하여 고려하는 것이 개념사라면, 해당 사전들의 서술은 공간적 차이는 드러나지만 시간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개념사는 닫힌 시공간을 펼쳐서 개념어를 재구성함으로써 개념을 역동적으로 드러낸다. 남북한 사전에서 발견되는 해당 용어의 개념은 역사적 시공간의 변화를 담지 못한다. 닫힌 시공간에서 구성된 개념은 사전이 발간된 시기에 합의된, 어쩌면 가장 우세한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발간된 시기에 따라 사전이 담은 의미를 펼쳐 놓는다면, 공론장에서 구성된 의미가 어떻게 생성과 변형을 겪는지 보여줄 수 있다.

문학 개념의 차이와 변형은 구체적인 실천의 양태에서 오히려 잘 드러난다. 서정시 개념의 분화를 바탕으로 분단의 지형을 드러내는 개념어 가운데 하나는 ‘김소월’이다. 김소월을 개념사로 접근한다고 할 때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첫째, 인물이 개념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인물이 분단을 내포할 수 있는가?이다. 비슷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 ‘라운규/나운규’ 연구이다.<sup>27)</sup> 이 연구는 인물, 작품, 문예사조 등이 영화 개념과 뒤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인물이 개념사 서술 대상이

25) 「서정시」,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6) 「서정시」, 사회과학원 편, 『문학예술대사전 DVD』, 평양: 사회과학원, 2006.

27) 김성경, 「한(조선)반도에서 내셔널시네마의 正傳을 기억하는 방법: 나/라운규(아리랑)에 대한 남북한 해석의 분단」, 『문화와 사회』 27(2),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허수이다. 허수는 개념사적 방법으로 손병희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면서, 기억하는 주체의 기억하는 의도와 역사적 인물과의 상호작용 맥락에 주목했다.<sup>28)</sup>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은 김소월을 기억하는 남북한의 경험공간, 기대지평의 차이와 변화가 분단을 역설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김소월은 문학에 대한 남북한 입장의 차이, 문학을 둘러싼 남북한 의식의 차이와 분단을 상징한다.<sup>29)</sup> 남북한이 구성해온 이데올로기와 각 사회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태도를 外現하고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김소월에 접근할 경우, 김소월은 개념이 될 수 있다. 식민 시대에 활동한 김소월은 남북한 모두에게 문화유산이자 전통으로 이름을 제출했지만, 시대적 변동을 통과하면서 남북한 영토에서 재구성되었다. 김소월은 초경험적, 초역사적, 형이상학적 차원이 아니라 시대의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남북한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을 내포하기 때문이다.<sup>30)</sup>

김소월이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기억되는지 살피려면 긴 호흡의 통시적 관점이 요구된다. 특히 기대지평의 맥락이 공론장에 들어오는 과정은 의미의 변동폭이 좁아서 오히려 지속적 의미구조를 담는 사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전은 발간 당시의 경험공간을 반영하고, 발간 시기별로 의미의 차이를 보여주기에 변동폭을 측정하는데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 게다가 사전은 문학사의 역사쓰기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발간된 사전들, 그중에서도 문학예술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문예사전에서 의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추려내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사전의 편술 내용은 메타데이터이자 개념사 사료의 가치를 지닌다. 정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사전은 편찬 주체나 이용자에 따라 목적과 기능을 달리 한다. 대체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미를 담는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다.<sup>31)</sup> 사전의 편찬 형식은 남북한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남한에서 김소월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전에 등재되어 왔다면,<sup>32)</sup> 북한은 시기적 편차가 뚜렷하다.<sup>33)</sup> 남북

28) 허수, 「해방 후 의암 손병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변천」,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29) 이지순,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 『비평문학』 70, 한국비평문학회, 2018(b), 194-195면.

30) 이지순, 앞의 2018(b) 논문, 197면.

31) 이지순, 앞의 2018(b) 논문, 198면.

한 사전 모두 인물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담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메타데이터의 종류는 대개 비슷하게 편입되어 있지만, 追敍와 記念은 북한 사전에서 누락되어 있다. 남한의 사전은 세계문학과 문예 흐름을 학습하면서 민족문학을 재편하고, 한국의 문학/문예, 특정 장르에 집중하며 전문용어 사전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사전을 번역하여 수용하다가 주체사상이 공식화·체계화되던 1970년대 이후 식민지 시기 진보적 문학으로 평가받았던 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삭제했다. 향토적이며 애국적인 시인으로 평가받았던 김소월은 1967년 김정일로부터 감상주의적이고 신앙적인 색채가 깔려있기에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후 문학사에서 지워졌다.<sup>34)</sup> 이는 항일혁명문학을 전통으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카프와 진보적 문학 전통을 부정하던 상황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식민지

32) 김소월이 등재된 남한의 문예사전은 대략 10종이다. 증보판과 개정판은 계수에 넣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1950년대 2종, 1960년대 2종, 1980년대 2종, 1990년대 이후 3종으로 분류된다. 1950년대 사전은 개인이 편술한 『현대세계문학사전』(곽종원 편, 1954)과 『세계문예사전』(백철 편, 1955)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는 출판사 중심으로 사전 발간이 이루어졌다. 『문예대사전』(학원사 편, 1962; 문지사 중판 1977), 『문학소사전』(어문각 편, 1963)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문예사전이 발간되지 않는 대신 문학사 쓰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발간은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다. 『한국시대사전』(김영삼 편, 1988; 증보 1991; 개정 2002), 『한국문예사전』(어문각 편, 1988; 증보 1991)은 1990년대에 걸쳐 발간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사전은 출판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재판, 증보판, 개정판으로 재발간되면서 항목의 선별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집필자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개인이나 출판사 중심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편찬된 사전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1991)으로, 북한의 공식 사전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논리보다는 학문적인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 필자로 구성된 사전이 발간되었는데, 『국어국문학자료사전』(편찬위, 1994), 『한국현대문학대사전』(권영민 편, 2004)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세계시인사전: 동양편』(원영섭 편, 2014)은 양적으로 가장 풍부하지만 필자구성이 누락된 점, 편술 내용이 이전 사전을 참조한 점에서 공신력이 약하다.

33) 북한에서 발간된 문예사전은 6종이지만, 『문예소사전』(1958)은 소련 사전의 번역이고 『문학예술사전』(1972)은 김소월을 등재하지 않았다. 김소월이 등재된 사전으로만 보자면 총 3종이다. 『문학예술사전』(사회과학원 편, 상권 1988; 중권 1991; 하권 1993), 『문학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편, 2000), 『문학예술대사전DVD』(사회과학원 편, 2006)이 있다. 『문예상식』(주체문학연구소 편, 1994)은 사전이 아니지만, 편술 내용의 차이가 드러나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34)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74~286면.

시대 진보적 문학을 재평가 하면서 김소월도 복권되었다.

사료로 선택된 사전은 시기에 따라 김소월을 어떻게 의미화 했는지 보여주었다. 1950년대 남한은 냉전적 세계인식과 반공주의적 시각 아래, 후진성을 극복한 민족문학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적이면서 민족적인 정서를 대표하는 김소월의 의미가 형성되던 것도 이때부터였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1979년 대통령령으로 편찬 규정이 공포된 이후 발간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이다. 김소월 시의 서정을 ‘恨’과 ‘女性的 情調’로 확정하고, 김소월의 후기 시를 ‘현실인식과 민족주의적 색채’로 규정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지배적인 김소월 개념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sup>35)</sup> 반면에 북한 사전은 1988년에 와서야 김소월을 등재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 김소월이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려면 사전 외의 자료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소월은 『김소월시선집』(1955)과 『현대조선문학선집2: 시집』(1957)과 같은 작품집, 엄호석의 『김소월론』(1958)을 비롯해 각종 평론과 문학사 서술, 서거 기념 의례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기억되었다. 1967년 ‘5.25교시’<sup>36)</sup> 이후 사라졌던 김소월은 1980년대 들어와 진보적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주체문학의 자장 안에서 복원되었다.

남한은 김소월 시의 서정을 ‘민족’, ‘한’, ‘여성적’ 정조로 보는 관점으로 옮겨갔다. 반면에 북한은 김소월의 ‘애수’를 인민적, 저항적, 사실주의적 정서로 보는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소월은 서정시 개념과 교차했으며,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라는 문예사조를 횡단했다. 남한 사전은 김소월의 전기 정보를 갱신하며 김소월의 죽음에 천착했다.<sup>37)</sup> 이 과정에서 김소월은 재능 있는 천재 시인에서 생활에 지친 천재

35) 이지순, 앞의 2018(b) 논문, 204면.

36) 1967년 조선로동당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일명 ‘5.25교시’를 계기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고, 수령 우상화를 심화하는 가운데 도서정리사업과 같은 분서갱유가 북한사회 전반에 불어 닳았다.

37) 김소월의 친족들이 증언을 보태면서 전기적 정보는 1960년대 사전부터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기적 정보 가운데 김소월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흘렀다. 김억의 회고담에 의존하던 김소월 생애는 1950년대의 전기소설부터, 3남 정호의 증언이 언론에 게재되고 숙모 계획영의 회고담이 출판되던 1960년대 이후에도 각종 전기나 평전은 여전히 출판되고 있다. 1950년대 김소월의 전기소설에는 김용제의 『소월방랑기』(1959), 조영암의 『소월의 밀어』(1959)가 있다. 1960년대에는 김영삼의 『소월정전』(1961)이 있다. 3남 김정호의 증언은 도서로 발간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자주 소개됨으로써 김소월의 전기 정보를 갱신했다. 여기에 획을 그은 것은 아들은 알지 못하던 김소월의 어린 시절이나 성격, 에피소드 등을 담은 숙모 계획영의 『내가 기른 소월』(1969)이다. 그 외 오세영의 『김소월, 그 삶과 문학』(2000), 김학동의 『김소월 평전』

시인,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천재 시인으로 이동했다. 낭만적이지만 비극적인 천재로 개념화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전은 사상적으로는 애국주의, 예술적으로는 사실주의로 김소월을 요약했다. 김소월은 낭만적 천재(남한)와 사실주의적 인민시인(북한)으로 분화되었다. 남한의 한의 정조는 북한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분노와 저항으로 의미화되었다. 김소월에게서 사실주의를 강박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던 북한이나, 한과 비극을 낭만주의로 포박했던 남한은 자기 방식으로 김소월을 읽었다.

주목되는 지점은 김소월을 둘러싼 남북한 개념의 쟁투이다. 남북한은 각자의 문학장을 작동하며 김소월을 전유해왔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의미화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대적 타자로 서로를 설정해 놓은 후 개념을 선점하거나 전유하려는 쟁투의 관점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남한의 문학적 현상이나 논리를 부르주아 퇴폐문학, 자연주의, 형식주의로 규정하며 김소월이 이러한 남한의 반동성과 다르다는 점을 내놓기 위해 애국적, 인민적, 저항적, 사실주의적 의미를 구축하려 애썼다. 1980년대 말에 엄호석의 『김소월론』(1958)과 리동수의 『우리 나라 비판적 사실주의문학 연구』(1988)가 남한에 소개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남한의 경우 북한의 관점을 경멸하는 입장에서 무시하거나 반박했다.<sup>38)</sup> 그러나 2000년 이후 남한은 현실, 노동, 저항, 민족주의의 맥락을 김소월에게서 발견했다.<sup>39)</sup> 북한은 『조선문학사7』에서 김소월 시에서 비애, 사모, 고독, 애절 등의 정서를 개성적인 창작세계로 긍정하고 있다. 북한의 문학사가 ‘개성’으로 받아들인 의미가 남한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남한에서 북한의 김소월 평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비판과 비난이었다. 자신의 영토에서 구축된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완고함은 상대의 논리를 부정하며 쟁투를 벌이도록 했다. 그럼에도 애국과 저항을 과감히 버리고 개인의 감정 세계로 김소월을 읽었던 『조선문학사7』은 남한의 해석과 상호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3), 외증손녀 김상은의 『소월의 딸들』(2012) 등이 있다.

38) 김용직, 「서정과 역사적 상황-김소월론」, 『김용직 평론선집』, 지식음반드는지식, 2015 참조.

39) 김소월 탄생 100주년 기념 특집호로 꾸린 『현대문학』 2002년 8월호에서 정효구는 「빼앗긴 땅, 꿈꾸는 노동」을 통해 북한의 김소월 해독과 연대하고 있다. 이지순, 앞의 2018(b) 논문, 217면.

## V. 개념의 분단사가 남긴 문제와 의의

한(조선)반도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사는 남북한의 비대칭성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은 상태에서 출발했음을 고백한다.

먼저 혼동, 혼란, 혼종 상태에서 개념사를 시작한 점이다. 개념사는 예술사/사회사/담론사와 무엇이 다른가? 예술사/사회사/담론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남북한 비교 연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개념사를 쓰려면 그동안 해온 글쓰기와 달라야 하는가? 이와 함께 장르론, 담론, 예술사를 비롯해 그동안 해왔던 갖가지 글쓰기를 벗어나 개념사 쓰기라는 새로움을 입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코젤렉의 개념사를 원형으로 삼고 코젤렉처럼 써야 한다는 억압도 작동했다.

둘째, 얼마나 많이, 깊고, 넓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개념의 분단사는 개념이 횡단하던 근대 초기부터 해방, 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포괄한다. 남한과 북한을 균형있게 조망할 수 있는 확 트인 시야도 요구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조선반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공간감과 영미 중심의 서구/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이라는 국제감을 비롯해, 역사적 환경적 변동 요인을 맥락으로 잡을 수 있는 시야각,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균질하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까지 요청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경로가 분단 이후라 하더라도 개념이 유입되던 근대 초기를 얼마나 어디까지 포괄해야 하는지는 언제나 고민이었다.

셋째,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때로 수공업자가 되어 하나씩 자료를 찾았다. 비대칭성이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쟁과 갈등, 배제와 수용을 보기 위해 계량할 마땅한 도구가 부족하기에 직관에 의존했다. 방대한 사료를 긴 시간에 걸쳐 디지털로 구축한 대만의 관념사처럼, 남북의 자료가 데이터로 구축된다면 계량적 접근을 통해 연구자 시선에 미처 포착되지 못한 자료의 발굴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자료 모두의 집대성이 불가능하고, 디지털로 구축할 남북한 자료를 선별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실제로 모호하다.

넷째, 개념어 추출의 문제이다. 서구적인 개념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재의 관점을 그대로 두고 이러한 관념의 형성사를 추적하는 연구들은 서양 개념의 도입과 변용에 관한 연구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남북한이 다르게 개념화하는 용어들의 역사적 변화과정 그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의 의미나 용법을

괄호에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적 수준에서 정착된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경합하였던 개념들과 역사적 과정에서 소멸되고 배제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개념의 정립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장을 보다 역동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개념의 분화와 단절의 역사를 과거로 소급하여 그 분화의 지점에서 논의되었던 초기의 개념을 둘러싼 경쟁과 대립, 상호 간섭과 중첩을 통한 의미 변화의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념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성의 공간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사유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반면에 문학예술 분야에서 중요 논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사용빈도를 조사하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출한다 할지라도, 고빈도 단어가 개념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적이다. 실제로 일상에서 작동하는 개념들을 유형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일정 정도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분단사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자평한다.

첫째, 분단 민감성으로 재구성한 개념어들은 분단 이후 남북한 현대사가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배제하고 상응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분단의 역사는 어디에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기에 분단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면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조선)반도 현대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잇게 된다.

셋째, 한국학에서 배제되거나 분리되었던 북한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타적인 누락을 반성하고, 적대적인 분리를 교합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분단의 해체는 분단의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분단의 해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영토의 통합을 지향하지 않는다. 분단 극복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다. 분단 극복은 분단 이전 과거로 돌아가자는 노스탤지어가 아니다. 어쩌면 한(조선)반도에 뿌리내릴 평화가 분단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 통일, 통합, 평화를 분단과 함께 사유함으로써 어제의 분단과 내일의 평화를 다시 고민해 보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조선)반도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사는 개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할 뿐만 아니라 분단 자체가 개념의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해석하고 서술해내는 작업이다. 남북한 문학예술 개념의 분절과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동시에 분단이 초래한 단절을 통해 분단을 해체하고 접합을

모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각자의 영토에서 남북한은 서로를 타자로서 배제해 왔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를 해석과 전유의 경쟁자로 의식한 증표였다. 냉전기에 해석의 경쟁이 폭발하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개념을 횡단해 왔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미국이나 소련을 통해 새로운 개념들을 직접 수입하고 수용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화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했던 개념조차 다른 의미로 분화되어 변용되었다.

한(조선)반도의 분단 상황을 맥락에 넣지 않고서는 개념의 발전 과정의 역학을 규명하기 어렵다. 분단과 이념의 장벽 아래에서 문학예술 개념어들은 정치·사회적 검열과 자기 검열을 통해 의미가 변화해 왔다. 문학예술 분야의 개념어들은 분단과 냉전을 반영하고 있다. 개념의 격차는 그 자체로 분단의 벽이다. 벽의 질감과 두께를 통해 분단을 재구성함으로써 문학예술 개념의 분단사는 일상, 감정, 문화의 영역에서 개념의 상호소통을 위한 길을 내기 시작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문학예술 각 분야의 개념어들은 역사적 분화과정을 겪어온 시공간의 질량만큼 강한 타자성을 확인할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분단의 맥락을 직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 제도적, 담론적 장벽을 넘어 소통의 길 또한 열리지 않을까 한다.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통해 오히려 개념의 역동성을 실재화하고, 이를 통해 분단이 해체될 수 있다. 역동성은 차이를 만드는 동시에 접변을 구성하고, 접변은 교차점을 통해 서로를 타자로 인정하면서 친연적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연다.

현실의 경험과 기대가 개념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면, 개념의 통합도 유인할 수 있다. 코젤렉의 기본개념이 역사의 운동을 선도하는 개념이라면, 기본개념의 접점을 마련함으로써 통합과 소통으로 운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개념의 수용과 통합, 사회적 반향, 문화적 표상과 그것의 스토리텔링, 대중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양상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개념의 접변과 통합을 통해 분단의 해체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 참고문헌

-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구갑우·이하나·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김성경·이우영·김승·배인교·전영선,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3』,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김성수·이지순·천현식·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김용직, 『김용직 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 김운찬, 『움베르토 에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함북측 성원들과 한 담화 1991년 8월 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사회과학원 편, 『문학예술대사전 DVD』, 평양: 사회과학원, 2006
- 자크 랑시에르 저,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 구갑우, 「개념의 분단사를 시작하며」, 구갑우·이하나·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a)
- \_\_\_\_\_, 「한반도 민족 개념의 분단사」, 구갑우·이하나·홍지석,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b)
- 김성경, 「한(조선)반도에서 내셔널시네마의 正傳을 기억하는 방법: 나라oun규<아리랑>에 대한 남북한 해석의 분단」, 『문화와 사회』 27(2),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
- 김성수, 「‘(민족)문학’ 개념의 남북 분단사」, 김성수·이지순·천현식·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김지영, 「풍속·문화론적(문학) 연구와 개념사의 접속, 일상개념 연구를 위한 試論」,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김현주, 「근대 개념어 연구의 동향과 성과-언어의 역사성과 실재성에 주목하라!」, 『상허학보』 19, 상허학회, 2007
- 이지순, 「‘민족문학’ 개념의 남북한 상호 영향관계 연구」, 김성수·이지순·천현식·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a)

- \_\_\_\_\_, 「김소월 개념의 전유와 분단」, 『비평문학』 70, 한국비평문학회, 2018(b)
- 장세진, 「1945년 이후, 개념의 잃어버린 ‘공간성’에 주목하라」, 『개념과 소통』 22,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8
- 최원식, 「80년대 문학운동의 비판적 점검」, 『민족문학사연구』 8(1), 민족문학사학회, 1995
- 천현식, 「‘민족적 음악극’ 개념사 연구」, 김성수 · 이지순 · 천현식 · 박계리,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허 수, 「해방 후 의암 손병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변천」,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 Cultural Politics in the Concept of Literature and Art i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Division of Literature that  
Assimilates, Traverses, and Practices

Yee, Ji-sun

This article examines the study 'The Divided History of Culture and Art Concept', which shows division sensitivity, and examines how physical division brought about the division of consciousness and conception and solidified the division. The two Koreas were cut off but not complete separation, competed to exclude each other, and sometimes communicated. Culture and art are areas where the two Koreas can negotiate with each other. Just as in the late 1980s, as the national literature mediate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ulture and art can lead communication, as Kim So Wol can conceptualize in a completely different sense. Experience in reality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lead to a change in concept. Therefore, it should be recognized how the concept put time and space in context and made the division historic. This allows us to dismantle the division and imagine beyond the division.

Key Words : asymmetry, division sensitivity, mutual appropriation, acculturation of concept, trans-conceptual context